

틈새 게임 중 던전애파이터 돌풍

개학 이후 정통 RPG · FPS 선전할 듯

게임전문 리서치인 게임트릭스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고교의 개학으로 전체적인 게임 사용량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지난 8월 1일자로 무료화를 단행한 <넥슨 클래식 RPG 5종> 게임들의 게임사용량은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이는 캐주얼 게임의 특성상, 게임 사용량이 무료화 시점인 8월 1일부터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방학이 시작되는 7월 중순이후 부터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 이에 방학 특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무료화라는 흡인요인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새롭게 20위권으로 진입한 <던전애파이터>는 기존 3D중심의 RPG에서 벗어나 횡으로 움직이는 2D를 도입, 레벨 업을 통한 스킬 습득이라는 RPG요소에 대전모드와 같은 아케이드 요소를 혼합한 것이 주요, 선전했다.

또한,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서든어택>의 경우, 출시되자마자 게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스페셜포스>와 <워록>이 2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FPS 장르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FPS 최초 수중 전투모드를 도입한 <서든어택>의 향후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간 방학 특수를 누렸던 캐주얼 및 라이트한 RPG게임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반면, 기존 고정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통 RPG게임 및 FPS게임의 선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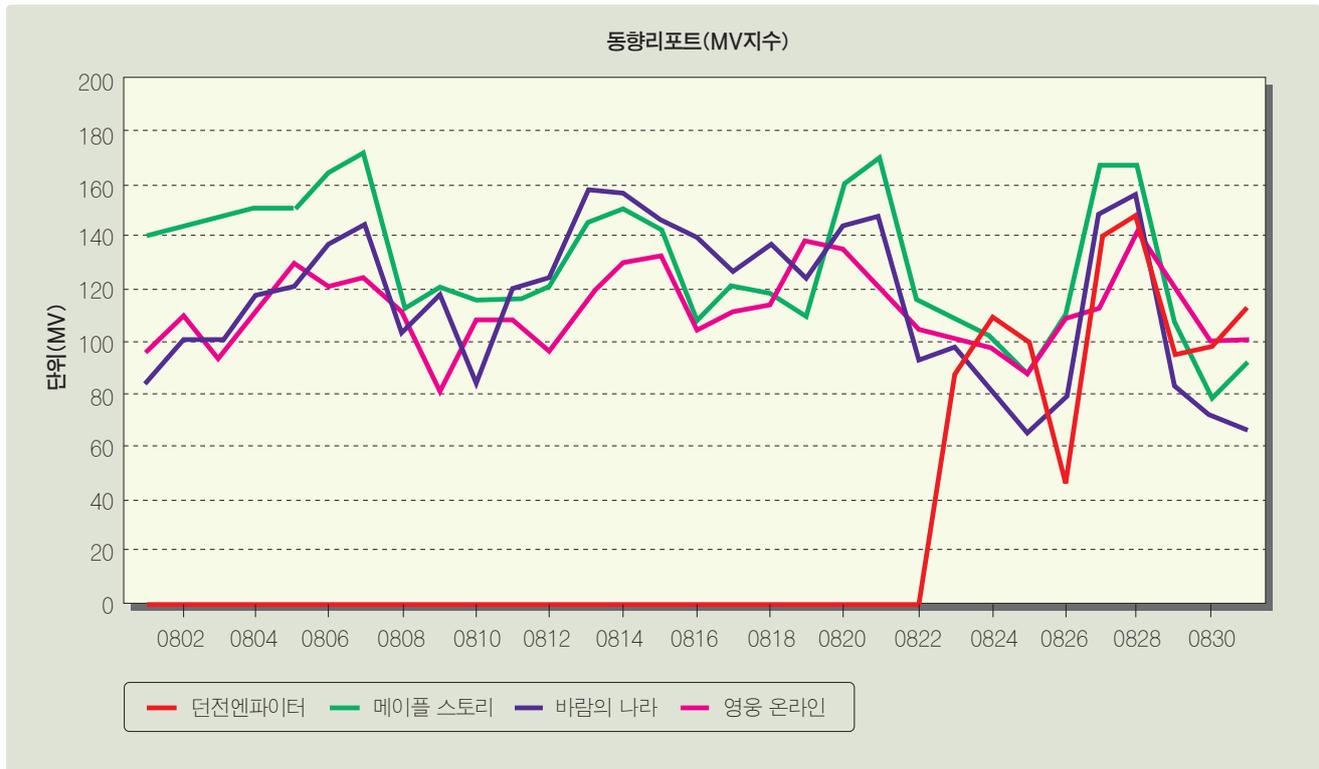
한편, <그림>을 분석해보면 던전애파이터가 출시 3일 만에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영웅 온라인>을 모두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메이플스토리 등이 이미 인기게임으로 자리 잡아 추월하기가 녹록치 않아보였으나 예상을 뒤엎고 17위를 차지했다.

총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언급한 4개 게임은 1% 전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행 PC방수를 살펴보면 메이플스토리가 타 게임들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을 뿐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임이 없었다.

이는 규모가 크고 정통을 고집하는 RPG보다는 이른바 '틈새게임'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게임의 관점 포인트는 던전애파이터가 얼마나 큰 인기몰이를 할 것인지, 또 유사하게 틈새시장을 노린 게임들이 얼마나 출시될 것인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그림> 온라인게임 동향 리포트



자료: 게임트릭스